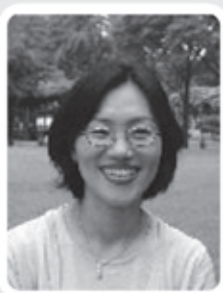


<특 집Ⅱ>

남산도서관의 독서치료를 활용한 도서관서비스 운영 사례



주 상 수*

도서관의 블루오션으로 “독서치료”를 도서관 현장에 적용한 사업을 제안한다. 독서치료는 책읽기를 통해 스스로 치유하고, 함께 공감하고, 서로 위로하며 내면의 성장을 돕는 독서여행이다. 스캇팩 박사는 ‘자기 부모 되어주기’라는 말을 했다. 이미 그 시기를 지나온 나에게 스스로 부모가 되어 내면의 상처를 위로하고 보듬어 주고 마침내 성장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정서와 원만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독서치료는 크게 임상적 독서치료와 발달적·예방적 독서치료로 나눌 수 있으며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독서치료는 주로 후자의 경우다.

현재 독서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 남산도서관만은 아니다. 여러 지역에서 독서치료에 대한 전문 교육이 진행되고 있거나, 독서치료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독서치료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수 있는 소양과 열의를 가진 역량 있는 사서 인력은 준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제는 그 힘을 어떻게 도서관 현장에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당면과제이며, 다양한 선행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독서치료를 활용한 도서관서비스는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남산도서관 독서치료 사업의 동력 “나무를 심는 사람들”

남산도서관이 2005년 하반기부터 진행하고 있는 독서치료를 활용한 도서관서비스 운영 사례를 소개한다. 먼저, 독서상담실을 2005년 5월에 개설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주1회 3시간 파견근무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2006년 4월 홈페이지 개편

* 남산도서관 독서상담실 사서, sjseeyou@hanmail.net

시부터는 사이버독서상담실도 함께 운영하며 그간의 성과와 사례를 탑재 중이다. 그러나 실제로 참가자와 주로 만나는 것은 집단독서치료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이며, “나무를 심는 사람들” 회원들로 독서치료실무진을 구성하여 집단독서치료프로그램의 기획 및 진행을 기존 도서관 업무에 부가하여 분담하고 있다.

이 모임은 독서치료를 연구하고, 실제 독서치료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자 하는 사서들의 동아리로 독서치료에 대한 개인적 열의를 기관차원,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학습동아리로 지원,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남산도서관 독서치료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핵심 동력이다. 이후 2~3년 내에 직원 인사이동에 의해 서울시 공공도서관에 재배치될 때 자연스럽게 독서치료 서비스의 지역적 확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독서치료에 대한 지속적인이고 조직적인 실제 적용과 사례연구, 타 기관으로의 보급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워크숍, 그리고 독서치료프로그램 운영

독서상담실에서는 2005년 하반기부터 실제 독서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전제로 도서관 예산을 지원 받아 “독서치료실무진을 위한 워크숍”을 11차례 기획, 진행했다. 워크숍은 도서관 현장의 사서들이 독서치료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실무진은 실제 운영할 프로그램을 집단적으로 개발하고, 전문가와 함께 개발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면서 기존의 다양한 운영방식과 사례를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사전에 실제 프로그램을 모델 운영해 봄으로써 실무자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프로그램의 질과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사서의 전문성과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참가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전 준비와 사후 평가, 재적용을 위한 수정보완 등을 위한 정례화된 논의 구조와 재교육 프로그램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실무진은 프로그램 참가대상자를 기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즉 독서상담실 지원근무 및 개별독서치료프로그램 운영(주상수, 이선희 사서), 어린이팀 운영(정혜경, 정경선, 최승숙 사서), 청소년팀 운영(주상수, 김만순, 임미화, 김진승 사서), 성인여성팀 운영(이향화, 이재경, 김은숙, 이선희 사서)등이다. 이후 어린이팀은 “(초등 1, 2, 3학년용 위한)사서와 그림책과 함께 떠나는 신나는 독서여행”을 3명의 사서가 3개 팀으로 10차시에 걸쳐 요일을 달리해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했으며, 2006년 6월에는 단체 참가신청을 한 공릉초등학교 6학년 26명을 4개 팀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년팀은 2005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기간 동안 제1기, 2기 “(중1, 고1을 위한)사서와 함께하는 독서여행”을 4차시로 운영했고, 학기 중에는(초등6학년, 중1을 위한)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독서여행을 2명의 사서가 2개 팀으로 8차시로 운영했으며, 2006년 여름방학에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제3기 “사서와 함께하는 독서여행”을 운영할 계획이다. 성인여성팀은 2005년 하반기에 “행복

한 나를 찾아가는 독서여행”을 8차시로 운영했고, 현재 격주, 7차시로 제2기 과정을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는 제3기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끝으로 개별독서치료프로그램은 독서상담실 방문이나 이메일, 전화 신청 등을 통해 3~4차시 혹은 8차시로 진행되었다.

“사서와 함께하는 열린 세미나” 그리고 “사서와 함께하는 1달 1책 읽기”

2005년 활동의 평가 즉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설 논의 구조의 필요성과 독서치료에 대한 지역사회 저변의식 확대를 통한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에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두 가지 있다. 먼저 “사서와 함께하는 열린 세미나”는 도서관 업무 중에서 집단논의를 통해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주제를 매달 선정하고, 선정자의 진행으로 실제 적용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워크숍 형식으로 매월 첫번째 휴관일에 운영 중이며, 집단독서치료프로그램의 사전 기획, 사후 평가를 위한 장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서와 함께하는 1달 1책 읽기”는 독서상담실과 “나무를 심는 사람들” 중심으로 남산도서관 직원 누구나 자신의 마음에 와 닿았던 책을 추천하고, 매월 두 번째 휴관일에 참가 가능한 직원들이 모여 추천자의 진행으로 ‘치유적 책읽기’를 한 소감을 나누고, 참가자 각자는 도서관 홈페이지 독서상담실 아래 해당 게시판에 ‘치유적 글쓰기’를 함으로써 도서관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책 읽는 사서가 책 읽는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취지로 진행 중이다.

독서치료는 도서관의 블루오션이다.

이상의 운영과정에서 사서들이 얻은 가장 소중한 경험은 ‘책읽기의 행복함’이다. 우리는 누구나 나름대로의 상처를 안고 살고 있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책읽기를 통해 참가자와 더불어 진행사서도 함께 치유되고 성장한다. 실무진워크숍에 오셨던 외부전문가들이 독서치료에 대해 도서관과 사서가 가지는 여러 가지 강점을 강조했었고, 운영을 통해 거듭 확인하는 독서치료의 매력 또한 이것이다.

독서치료는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서비스로써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공서비스 중의 하나다. 그러나 민간이 수익을 기대하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책이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만져야 하는 사서가 책을 매개로 정신건강을 도모하는 독서치료관련 서비스를 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독서치료는 도서관의 블루오션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소중한 분야이다. 독서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서들이 남산도서관 사례를 발판으로 보다 다양한 방식의 접근과 적용을 위해 분투하며 또 다른 논의의 장에서 반갑게 만나기를 기대한다. 